

이방인과 이웃되기

김종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시대에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브라이언 월쉬가 말한 것처럼 ‘세계화된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세계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다른 표현인 과학주의, 기술주의, 특히 자본주의가 세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된 세상이 동시에 포스트모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절실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독교가 제대로 된 의미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리성은 개나 쥐 버려 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자신도 도달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의미 있는 신념들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모더니즘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본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진리를 희생하지 않고도 얼마나 다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설정된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모든 다양한 것들을 획일화 시키는 폭력을 감행하는 모더니즘과 모든 것이 옳다고 하면서 불가공약적인 다양성을 누리는 것을 절대 선으로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라는 거대 이야기가 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대 이야기가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속임수요 이데올로기였던 모더니즘과 거대 이야기는 가능하지도 않고 언제나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제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는 특히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진정한 해방(구원)과 다원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야기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착한 이야기를 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을 이웃 삼는 일이 기독교라는 거대 이야기가 다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착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방인을 이웃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이 발전한 궤적을 따라가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보면 우리라는 외연이 넓어지면서 과거에는 그 안에 들어오기 힘든 그룹들이 우리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이 그렇고, 장애인이 그렇고, 아동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으로 취급되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리라는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그나마 조금 우리라는 범주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 나라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조차 없는 난민, 강제로 이주해 온 인신 매매 피해자들은 우리라는 카테고리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우리’라는 범주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방인을 이웃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유행인데, 다문화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문화로 흡수된 외국인들이므로 그들을 이제 우리처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한계에 부딪치게 마련입니다. 한국과 같이 인종차별이 심하고 소위 순혈주의, 단일민족이라 허구적인 개념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지는 곳에서 외국인은 끝까지 우리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기는 합니다. 21세기인데도 여전히 헌법에서는 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인권과 관련해서 개선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 외국인의 인권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구금, 강제추방, 난민 불인정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방인을 우리라고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잘 삼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부터가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도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을 선대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뿐 아니라 출애굽 한 이후에도 너희는 여전히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할 때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죽어서 가게 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의 플라톤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때에는 늘 청지기 사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청지기 사상은 플라톤주의와는 다릅니다. 청지기 사상은 내가 땅의 주인이 아니지만 맡은 바 성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주의는 이 땅의 것은 모두 사라질 허망한 것이니 여기에 아무 소망이 없고 앞으로 이데아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득권이고 나의 재산이고 무엇 보다 나의 재능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 자신의 점수가 아까워서 점수 맞추어서 진로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점수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법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이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낭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인 비유에서 반쯤 죽게 된 사람이 땅에 널 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 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아마 그들이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자신이 더러워 질까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너무 가리는 것이 많았고 잃을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런 점에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진다고 자신이 부정 타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렘브란트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 번 그렸는데 한 그림에 개가 똥을 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귀한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만 자신을 똥개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이 다급한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밤잠 안자고 변변하게 연애도 안하고 고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나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똥개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이방인을 제대로 이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똥개라는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반쯤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방인을 이웃 삼기 위해서는 우선 나도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방끈도 길고, 공부도 무지 많이 했지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똥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잘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도 이방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방인의 제대로 된 이웃이 되려면 이방인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셔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이 제사장도 성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로 물어보았던 율법학자에게 이방인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단지 나의 동정의 대상이나 사역의 대상이나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나의 선생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나의 선생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이방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게 하면 우리 신앙이 위협해지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는 “우리 문화는 이방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법과 제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되었는지 상관없이, 우리 문화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은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문화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타락한 인간이 만든 문화는 그렇게 양면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선생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은 이방문화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문화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채 우리 문화는 내가 극복해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방 문화 속에 있는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은(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은) 선한 것과 진리를 배우는 것은 합당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 성령님이라면, 비그리스도인이 쓴 책에 담긴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를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가진 악함과 한계를 봐야 합니다. 이방 문화에도 악한 요소가 있고 우리 문화에도 악한 요소가 있지만 우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문화의 악함과 한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습니까? 대조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으로 우리 문화를 조망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얼마나 우수하고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잘 살게 되었는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병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문화의 한계와 악함을 보기 위해서라도 대조 문화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들을 선교의 대상 이상으로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외국 사람들이 안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선교하러 외국에 나갈 필요 없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해외 선교다”라고 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중에는 통일되면 북한 복음화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기독교가 착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거대이야기다. 역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의심스러운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거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자들에게 접근하게 되면, 기독교가 착한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느라, 기독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럴 듯한 말을 만들어 내는 이데올로기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진정한 이웃을 삼는 길은 그들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이방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착한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이웃 삼는 방법으로 이방인을 선생으로 모시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수행해야 하는 다른 과제, 즉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함을 존중하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와 연결 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니다. 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다양성을 높이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삼위 일체 이신 하나님 자신이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똑 같은 것들을 찍어 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똑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나

무의 나뭇잎도 모두 다릅니다. 창조 기사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양하게(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 계속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은사의 다양함은 긍정적인 것이고, 주님은 성도의 하나 됨이 그 다양성을 희생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고양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문화를 획일화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방인을 우리로 치환한 후에, 즉 우리라는 범주 안에 집어 넣고 난 후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잘 못되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성령강림절 날 바벨탑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어떻게 바벨탑의 저주가 풀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쓰게 되는 방식으로 풀린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듣는 것으로 풀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방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9 굉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문화든 다른 문화든 모든 악한 것은 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여전히 남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볼 때, 그들의 문화를 볼 때,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을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의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뭔가 남과는 다른 것으로만,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혈을 강조하고,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끊임없이 형성해 갈 수 밖에 없고, 타인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경험과 이야기로 나의 정체성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나의 선생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생으로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배워 우리의 정체성을 풍성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또 다른 우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다름을 무시하고 그들을 우리로 치환하기 위해 “이방인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선생으로 모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방인과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웃되는 것을 통해 우리라는 정체성이 없어지지도 이방인의 다름이 무시되지도 않으면서도, 이방인이라는 선생으로부터 배우워 우리의 정체성이 풍성해 집니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마치 포용(포용)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용(포용)을 할 때 나는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만듭니다. 팔을 벌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인 동시에 내가 단지 자족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포용(포용)을 할 때 나는 팔을 접어 타인을 감쌌다. 팔을 감쌌다는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타인이 내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일부가 됨으로 나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포용(포용)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충실하게 남아있으면서 동

시에 아무도 예전과 똑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아주 배타적인 이웃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잘 못 된지 모른 채 그것을 정당화 하려고 예수님에게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웃 리스트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 리스트에 대한 영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배제 했던 그 이웃 리스트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특히 인종차별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 중에 하나인 이방인들을 이웃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이웃 삼는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라는 범주에 꾸겨 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을 보고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반쯤 죽은 사람이 강도당한 것을 가장한 강도 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이 탈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쯤 죽은 사람을 돌보는 일은 자신들에게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나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줍니다. 누가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모든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마치 자신이 종이된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신을 나귀를 끌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제대로 된 이웃이 되려면 우리가 이방인이다, 렘브란트의 해석대로 우리가 똥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사’자도 입에 담기 싫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자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를 선생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그들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방인을 선생으로 삼아 그 동안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잘못된 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나의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善)과 진리를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을 선생으로 가장 잘 모시는 길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더 풍성해 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공간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로부터 가지고 온 경험과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 있도록 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방인을 나의 선생으로 모셔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는 일은 세계화된 포스트모던 시대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과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기독교라는 거대 이야기가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착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만으로는 안 되고 그 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야기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야기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이방인을 이웃 삼는 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